

워크숍 2 (최대 인원 50 명) (영상)

쌍카르 가는 길: 히말라야 여성 불자들의 삶

“Journey to Zangskar: The Lives of Himalayan Buddhist Women”

까르마 렉쉐 쏘모(Karma Lekshe Tsomo)/ 번역 박미선

요약문:

우리는 종종 세계 각지에서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마주하게 된다. 잠양재단은 1986 년부터 고대불교와 현대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여성들의 열망을 지원하며 종교적 이상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히말라야 전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여승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잠양재단이 지원하는 9 개의 암자는 파키스탄과 티베트 사이에 끼어 있는 인도 히말라야의 외딴 불교 지역인 쌍카르에 있다. 이 영화는 2019 년 쌍카르의 여승들을 방문했던 나의 여정을 담은 사진 모음이다.

발표자 약력:

까르마 렉쉐 쏘모(Karma Lekshe Tsomo)스님: 샌디에고 대학의 신학 및 종교 연구교수로 불교 사상과 문화, 불교와 여성, 깨달음의 이미지, 죽음의 과정, 죽음, 사회 정의와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로는 불교페미니즘 철학, 불교와 생명윤리, 종교윤리비교, 국가주의를 초월한 불교, 불교사회이론 등이 있다. 스님은 샤카디타 (Sakyadhita)의 설립자이자 전회장이고 개발 도상국의 여성 교육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잠양재단(Jamyang Foundation)의 설립자이다. 저서로는 ‘불교에서의 여성’, ‘죽음의 신, 야마의 입속으로; 불교, 생명윤리, 그리고 죽음’, ‘홀로 수행하는 비구니들: 여성 수행자를 위한 사찰 윤리의 두 전통’ 그리고 불교 여성에 대한 수많은 편집된 저서들이 있다.